

외국학계의 정보수용과 번역

오세영

시인 · 서울대 국문과 교수

내가 알고 있는 교수 한분은 비교적 많은 원고를 쓰고 있는 분이다. 시중의 월간지라든가 계간지에 거의 빠짐없이 글을 발표하고 있으며 단행본 서적의 출간 역시 수십종을 넘어서 많은 후배나 제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그는 웬만한 학자라면 일생동안에도 남길 수 없는 업적을 2~3년 안에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물론 비범한 그의 학자적 재능과 그만이 기울이는 각고의 노력이 결집된 결과에서 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배들로서는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가 수없이 발표할 수 많은 글들의 상당수가 최근 구미학계에서 문제되고 있는 최신의 학문을 거론하고 있는데, 것처럼 방대한 분량의 집필을 거의 매일 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처럼 외국의 최신이론을 빨리 접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실제로 내 경우 하루에 영어 원서 2, 30쪽을 읽기가 어렵다. 하물며 것처럼 영어, 불어, 독일어권의 최신이론을 단시간에 섭렵하는 일에 있어서라—

그런데 이 의문은 최근에 와서 풀려졌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구미의 원서를 대부분 일본어로 번역된 서적을 통해 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로 일본어 번역서를 읽으면서 필요한 때 이 책의 원서를 대조해서 뜻을 풀이하는 방법으로 구미의 최신서적을 독과하나까 이처럼 단시간에 많은 외국의 학문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이다. 50대 후반에 든 그로서는 일본어 구사능력이 일본어를 모르는 우리 세대의 영어구사능력에 비해서 탁월한 까닭에 이러한 방법이 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보니 언제인가 어느 50대 후반의 불문과 교수에게 불어원서를 읽기가 편한가, 일본어 원서를 읽기가 편한가 물었을 때 그가 주저없이 후자쪽이라고 대답하던 기억이 생각난다. 언어의 구조상 아무래도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구미의 언어보다 일본어를 구사하기가 쉬운 것이다.

구미의 원서를 읽을 때 보다 쉬운 언어의 번역서를 참조한다는 사실이 나쁜 이유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우리 세대가 일본어를 모르는 까닭에 어려운 구미어를 해독하는데 그만큼 긴 시간을 소비하였다면 그 비능률적인 독서를 탓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왜 우리나라에는 그와같은 구미어의 번역서가 제때 그리고 쉽게 다수 간행되지 못하고 이처럼 일본어 번역서의 도움을 받아 국가적 손실을 입어야 하는가 하는 점에 있다. 그것은 한국인의 구미어 번역실력이 결코 일본보다 뒤떨어져서도, 번역서의 국내시장이 경제성이 없어서도 아닐 것이다. 내 생각으로 그것은 출판인들의 문화적 소명의식, 무사안일한 경영, 외국어 학자들의 편견 따위와 같은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예컨대 출판인들이 대중의 말초적 감각이나 자극하는 책을 내서 돈을 벌기나 바라고, 구미의 원서를 일본어 번역서에서 중역하여 값싸게 출판하려고나 하고, 번역하는 일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일부 외국어 학자들이 자신의 제자 학생들이 불성실하게 번역한 저서에 이름이나 없기를 바라는 풍토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구미원서를 번역 출판하는 일이 제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다 아는 바와같이 현대는 정보사회라고 한다. 정보에 뒤진 민족은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다. 하루가 달리 변화 발전하는 선진외국의 학문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절실하면서도 시급한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출판계가 외국의 학문정보를 빠르게 충분히 우리말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준다면 외국원서를 일일이 사서 보고 긴 시간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읽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시간적 인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출판계가 외국의 학문이론서들을 전문적으로 번역출판해낼 수 있는 제도적 경영적 체계화를 이룩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독자양케트	2	독자들은 이런 책을 원한다 —90년대 출판계에 거는 독자들의 기대
표지인물	6	古書街에 새 바람 일으키는 朴大憲씨
초점	7	“도서관행정 文化部로 이관돼야”
연재기획	8	증언으로 엮는 해방전후 출판계 ⑨ —해방직후 교과서업계 주변
서평	10	安秉直 의 「近代朝鮮의 經濟構造」—吳斗煥 安澤源 「소련, 그 열정과 좌절」—金永俊
	11	J.L. 맥키 「윤리학」—黃瓊植 헨리 토러 「억압받는 자들의 연극」—金錫滿
	12	현길언 「무지개는 일곱색이어서…」—권오룡 김향숙 「종이로 만든 집」—박철화
	13	이광복 「열망」—오양호 한승원 「王仁의 땅」—韓基
종합서평	14	한국정치의 현실분석과 미래전망—金學俊
저자인터뷰	15	「한국 農學史」 펴낸 李春寧박사
그때 그시절	16	나의 新丘文化社 시절—丁海廉
조사	17	이종익선생을 추모합니다—崔德教
출판화제	18	정치경제학 교과서 쏟아진다
탐방취재	19	강원대 출판부를 찾아서
신간抄	20	잘못쓴 말, 고쳐써야 할 글 —국어연구소 펴낸 「국어오용사례집」
신간화제	21	「인간과 철학」·「앨빈 토플러 선집」
교양논단	22	언어의 미궁에서 찾는 ‘책중의 책’—金聖坤 —보르헤스의 도서관이론이란 무엇인가
작품구상	23	장편 「긴 계곡」—李然喆
독서중	24	쓰노다 후사코 「민비암살」—교사 文承俊씨 이청준 「秘火密教」—카피라이터 장성희씨
	25	정운영 「광대의 경제학」—회사원 朴柄旭씨 권인숙 「하나의 벽을 넘어서」—잡지기자 南美慶씨
	26	유태인들이 꽃피운 19세기 빈의 문화·외
세계의 출판	28	새로 나온 시집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화제의 책/이색출판
	40	신간목록
	47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
	48	프리즘 (이경훈)/독서퀴즈/정기구독안내